

희생양 메커니즘과 폭력의 윤리적 문제

- 르네 지라르의 모방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이종원*

주제분류 윤리학

주요어 희생양, 모방 갈등, 스캔들, 상호 폭력, 희생양 메커니즘, 성스러움

요약문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폭력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를 위협에 빠뜨리는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고 폭력 극복의 길을 찾고자 한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현상으로서,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 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공동체는 희생양에게 모든 갈등의 책임을 전가시켜 희생제의를 치름으로 다시 안정을 찾게 된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원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인식되었다. 희생양은 공동체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기 위하여 선택되는데, 그들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보복이나 복수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 희생양에 대한 폭력에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폭력은 만장일치적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희생양 메커니즘은 피억압자의 희생을 정당화하면서 억압자의 권력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능으로 작용하기에 문제시된다. 희생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 계명대학교

라도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폭력일 뿐이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일시적 미봉책으로서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라도 반복될 악순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문제시 된다. 또한 희생제의 속에는 집단적 죄악이 들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넘어서야 한다. 예수는 자발적인 자기희생을 통하여 폭력의 악순환을 끊었다. 예수는 비폭력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평화와 화해의 길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가 몸소 실천한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는 말

사람들은 자신에게 화를 끼친 당사자에게 복수할 수 없을 때 무의식적으로 다른 대체물을 찾아 분노와 복수심을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무고한 희생양들은 폭력 해소의 대체물로 지목되어 억울하게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희생양들은 언제나 소수 그룹이나 주변인들 또는 외부인들 가운데서 선택되어 다수의 억압과 차별, 그리고 배제의 대상이 되었다.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언제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박해자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였다.

네로 황제에 의해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하자, 재산과 인명의 손실은 입을 로마의 시민들은 광분하여 폭도로 변하였다. 당황한 네로는 시민들의 분노를 해소시킬 희생양을 찾았고,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중세 유럽에서 페스트가 창궐하자 유대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박해가 있었다. 14세기 중반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기욤 드 마쇼(Guillaume de Machaut)는 1349년과 1350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수천 명의 대학살을 시로 표현하였다.¹⁾ 사방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고 천둥으로 사람들은 기진하게 되었다. 재산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비난은 깨끗한 강과 샘에 독을 탄 사악한 자들에게 돌려졌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²⁾

1) 지라르는 기욤 드 마쇼의 시를 박해하는 폭력의 순진하고 무의식적인 현현으로 보고, 이를 흑사병이 창궐했던 당시 집단학살과 연결시킨다. Chilton, Bruce D. "René Girard, James Williams, and the genesis of violence",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3 1993, 18쪽.

2) Ushedo, Benedict O. "Unloading Guilt: The Innocent Victim as Illustrated by James Baldwin and René Girard",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53 - 54 no 2 - no 1 1997, 136쪽.

또한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 홀로코스트가 자행되었다. 1차 세계 대전 패배 이후, 히틀러는 상처 입은 독일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우고 게르만 민족사회주의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무고한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희생양 만들기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여 공동체 내부의 갈등을 해소했던 사례들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현 시대에는 더 이상 희생양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공정한 사법제도가 공동체를 지탱하고,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공적인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미덕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적인 폭력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억압당하는 경우가 있다. 때로는 집단적 히스테리의 광기에 사로잡힌 다수가 소수를 향해 분노와 폭력을 분출하기도 하고, 또한 묻지마 형태의 폭력과 이를 모방하는 폭력도 발생한다. 이로 보건대,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희생양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르네 지라르(René Girard)가 주목한 개념으로서 이는 그가 소수자로서 겪었던 차별과 배제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지라르는 프랑스 아비뇽 출신으로 파리에서 ‘남쪽 사람들’로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그 후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에도 이민자로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개인적인 체험이 그의 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³⁾

지라르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폭력의 근원을 추적하면서, 인간 문화는 모방적 갈등과 대리적인 희생양 메커니즘이라는 두 원리가 발전되어온 것이라고 보았다.⁴⁾ 그는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경쟁의식, 그

3) 정일권,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복음과 윤리』 11권, 2014. 2, 82쪽.

4) Lefebure, Leo D. “Victims, violence and the sacred: The thought of René

리고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질투와 원한의 근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모방욕망이 폭력으로 분출되면서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을 집요하게 파헤쳤다.

희생양 메커니즘이란 폭력적 성향의 집단적 전이(轉移)현상으로서, 공동체가 갈등으로 인하여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로에 대한 증오심을 힘없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게 쏟아부어 공동체 내부의 긴장과 불만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소수를 향한 다수의 힘에 의한 야만적 횡포와 폭력은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가로막는 장애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집단적인 폭력과 파괴의 위협은 모방 욕망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되며 재생산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르네 지라르의 모방 이론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안에 내재된 폭력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모방적 욕망과 폭력

지라르는 인류 문화의 기원, 특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폭력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전 세계의 신화와 제의, 예술 작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모방적 욕망과 희생양 메커니즘, 짝패, 르상티망 등의 개념을 통해 원시 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편만해 있는 폭력의 문제를 파헤치면서, 인간사회의 갈등과 폭력의 문제를 풀어내는 코드는 바로 모방 욕망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질투와 증오의 감정이 반복, 재생되는 갈등 관계라고 보았다.

Girard", *The Christian Century*, 113 no 36 Dec 11 1996, 1226쪽.

1) 욕망의 삼각형 구조

지라르는 폭력의 뿌리에 존재하는 경쟁의 모방적 성격에 주목하면서 모방과 욕망의 관계를 분석한다. 그는 인간의 모든 욕망은 비자발적이며 모방적이라고 단언한다. 욕망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잠재된 폭력은 모방의 메커니즘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다.⁵⁾ 그는 욕망의 근원을 스캔들(scandale), 즉 “갈등적인 모방”으로 보고, 스캔들은 전염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항상 제3자와의 관계로 해석된다. 즉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 욕망의 주인은 욕망하는 주체인 나일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어떤 대상을 욕망할 때 그것은 나의 내면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로부터 빌려온 욕망을 모방한 것이라는 것이다.

지라르는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에서 소설 주인공의 모든 욕망은 중개자에 의해 암시된 가짜 욕망으로서 삼각형의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⁶⁾ 즉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대상과 그 욕망의 매개자가 삼각형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욕망에는 이러한 삼각형 구도의 세 가지 욕망이 나타나며, 이를 욕망의 삼각형(triangular desire)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지라르는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로 보지 않고, 매개자라고 하는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파악하였다. 인간 욕망의 본질은 바로 제3자를 거치는 매개 작용이라는 것이다.⁷⁾ 즉 제3의

5) Charles Hampton, “Beyond reciprocal violence: René Girard and Siegfried Sassoon”, *Practical Theology*, 1 no 1 2008, 65쪽.

6) 지라르는 욕망의 비자발성, 즉 욕망의 모방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애써 주장하는 태도가 바로 ‘낭만적 거짓’이며, 반면 욕망의 비자발성을 인정하고 그 실상을 보여주는 태도는 ‘소설적 진실’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르네 지라르, 김치수 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1)을 참고하시오.

타인이 욕망의 매개로 개입하여 욕망하는 주체와의 모방적 경쟁관계를 통해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관계는 욕망을 부풀리고 마침내 선망과 질투, 원한과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제3의 타인을 ‘짜패(double)’로 만든다.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의 매개자 사이에는 은연중에 경쟁관계가 생겨나면서 질투, 원한, 선망과 같은 미묘한 감정을 낳는다. 양자 사이가 너무나 가까워 욕망주체와 거의 같은, 그래서 그의 분신과도 같은 욕망의 매개자가 바로 짜패이다. 짜패는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동시에 욕망의 실현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되기에 갈등을 일으킨다.

모방욕망은 욕망 매개자인 짜패와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서로를 닮게 만들면서 동시에 갈등을 유발한다. 바로 이 매력-혐오(attraction-repulsion)가 원한, 증오, 질투 따위의 감정이 되풀이되면서 쌓이는 르상티망을 낳는다. 지라르는 르상티망이야말로 전형적인 현대인의 감정이자 질병이라고 진단한다.⁸⁾ 개인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없어질수록 숨은 원한, 질투, 시기 등과 같은 짜패 갈등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다.

2) 모방 욕망과 갈등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배우는 과정에서 모방 메커니즘(mimetic mechanism)을 형성하게 된다. 지라르는 모방 경향을 인간 욕망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으로 규정한다. 욕망에 대한 모방은 경쟁심을 낳고 그 경쟁심은 역으로 모방을 낳는다. 경쟁적 욕망이 커질수록 이 욕망에 내재된 위험 또한 커진다. 지라르는 인간 집단 가운데에는 아주 강한 경쟁적 갈등 성향이 있는데, 이 성향을 제어하지 못하면 모든

7) 김모세, 「아프리카 소수 부족 통과 제의에 대한 한 해석 - 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研究』 제22호, 2007. 8, 8쪽.

8) 정일권, 「슬픈 현대: 글로벌 시대의 종교와 평화 르네 지라르의 최근 저작 『클라우제비츠를 완성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36권, 2013, 255쪽.

공동체의 조화,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다.⁹⁾ 즉 인간이 지닌 모방 욕망은 인간 사회의 존재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은 냉혹한 경쟁과 갈등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서로에게 전적으로 반대하지만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매력적인 장애물이 되어 더 큰 갈등을 낳는다. 모방적 경쟁 관계로 인한 스캔들은 선망, 질투, 원한, 증오와 같은 해로운 독소를 퍼뜨린다. 그런데 이 독소는 애초의 경쟁자들뿐 아니라 욕망의 강렬함에 매료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친다. 스캔들이 절정에 이를 때 복수는 전보다 더 강렬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어떠한 제동장치도 없이 그냥 내버려두면 연쇄적인 복수로 이어지는데, 이런 복수의 연속은 폭력과 모방의 완벽한 융합이라 할 수 있다.¹⁰⁾

구성원의 숫자가 많아지면 모방 위기는 끊임없이 번져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폭력은 모방욕망으로 인한 시기와 경쟁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이는 모든 욕망이 구성하는 피할 수 없는 미메시스 관계의 어두운 면이다.¹¹⁾

모방 욕망(mimetic desire)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에 순식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모방적 갈등(mimetic rivalry)이 격화되어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때쯤이면 얻고자 하는 욕구의 대상은 뒤로 물러나고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한 적의가 폭력성을 띄면서 분출하게 된다. 포유류 동물에게도 모방적 경쟁관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포유류들은 치명적인 상황에 접어들기 전에 경쟁적인 갈등을 중단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이를 제어할

9)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1쪽.

10) 같은 책, 31쪽.

11) David B. Burrell, "René Girard: Violence and Sacrifice", Cross Currents, 38 no 4 Wint 1988 - 1989, 446쪽.

수 있는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 스캔들을 한데 모으는 힘은 모방의 강한 전염이다. 개인적 스캔들이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심해질수록, 그 스캔들에 휘말린 사람은 그것을 더 큰 스캔들에 파묻어 소멸시키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소위 정치적 박해나 혹은 오늘날처럼 세계화된 세상을 휩쓰는 강한 스캔들에서 잘 볼 수 있다.¹²⁾

3) 욕망과 폭력

갈등이 모방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할 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쉽게 전달되는 성격을 갖는다. 모방 욕망이 전염되어 갈등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집단 폭력에 앞서 나타나는 카오스는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모방적 경쟁 관계의 결과로서 인간 공동체의 해체를 초래한다. 모방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점점 전염성이 강해진다. 인간이 폭력에 쉽게 물들고 폭력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근본원인은 바로 모방 욕망과 그로 인한 모방적 갈등 때문이다. 상대가 가진 것을 가지려는 욕망이 폭력의 뿌리인데, 이것은 인간 문화의 실존과 함께 피할 수도 없고(ineluctable) 양립할 수도 없는(incompatible) 성질의 것이다.¹³⁾

지라르는 모방에 대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폭력의 상승 작용을 향한 큰 문이 열린다고 경고한다.¹⁴⁾ 어찌 보면 짝패 갈등은 모방을 본능으로 타고난 인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한계와 같은 것이다. 이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력의 잠재적인 상태이다. 지라르는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기초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초석적 폭력(violence

12) 르네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40쪽.

13) Bruce D. Chilton, "René Girard, James Williams, and the genesis of violence",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3 1993, 18쪽.

14)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서울: 문학과지성사, 2007), 40쪽.

fondatrice) 혹은 본질적 폭력(violence essentielle)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의 보복을 수반하며 끝없이 계속 모방되어 되풀이된다는 점에서 상호적 폭력(violence reciproque)이라고 부른다.¹⁵⁾

개인들 사이의 스캔들은 집단적 폭력의 큰 강에서 다시 만나는 작은 개울물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하던 모든 스캔들을 하나의 희생양을 향하는 단 하나의 스캔들로 묶어내는 것을 두고 ‘모방의 회오리’라 부를 수 있다.¹⁶⁾ 일단 ‘모방의 회오리’에 휩싸이면 만인은 만인에 대한 폭력적 모방위기가 생성된다.

4) 폭력의 전염성

폭력은 전염성이 강하다. 한번 폭력을 맛보게 되면, 사람들은 쉽게 폭력에 빠져들게 된다. 일단 폭력이 공동체 속으로 침투하면 계속해서 증식되면서 강화된다.¹⁷⁾ 그리하여 사람들은 폭력적인 전염에 쉽게 노출되어 복수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폭력이 갖는 모방성은 강렬하기에 공동체 안에 일단 폭력이 자리 잡게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일단 피를 흘리게 되면, 피 흘림은 역병과 같이 급속도로 번져간다. 폭력은 이에 맞대응하는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다. 이처럼 폭력이 쉽게 확산되고 전염병처럼 번지는 것은 모방(Mimesis) 때문이다.¹⁸⁾

폭력은 사람들이 폭력을 억제한다고 믿는 장애물마저 오히려 자신의 작용 수단으로 바꾸어 버린다. 폭력은 그것을 끄기 위해 그 위에 던져지는 모든 것마저 삼켜버리는 불길과 비슷하다.¹⁹⁾ 모방적 경쟁의 화염이 폭력의 전염성으로 확대되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공동체

15)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72), 495쪽.

16) 르네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40쪽.

17)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103쪽.

18) 라이먼드 슈바거, 손희송 역, 『희생양은 필요한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36쪽.

19)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51쪽.

는 응축된 폭력성을 분출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공동체는 상호간의 폭력으로 인해 파멸할 수밖에 없다. 지라르가 강조한 모방행동과 폭력의 전염성은 서로를 모방하게 만드는데, 이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고와 행동이 주기적으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시 사회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폭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멸하지 않도록 폭력을 통제하고 해결하는 일이었다. 폭력으로 인한 연쇄적 복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세 가지인데, 첫째 방법은 희생제의를 통해서 복수심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예방조치의 방법이고, 둘째 방법은 타협이나 결투형식의 재판과 같이 복수를 규제하는 방법이고, 셋째 방법은 치유 효과가 가장 뛰어난 재판제도이다.²⁰⁾ 하지만 원시 사회는 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재판과 같은 사법 제도가 없었기에 복수의 악순환이 거듭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원시 사회에서 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수단은 바로 희생제이었다. 고대 종교에서 폭력을 물리치는 것은 폭력에 대한 금기와 제의들이었다. 금기는 폭력으로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희생제의 역시 폭력적인 형식을 통해 폭력의 배출구를 제공함으로써 더 무서운 폭력을 덜 무서운 폭력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지라르가 말하는 폭력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공동체의 일원들 사이에서 욕망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내재적 폭력이며, 다른 하나는 이 폭력을 제거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집단적 해결책으로서의 초석적 폭력이다. 전자를 모방적 폭력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희생적 폭력이다. 이 두 가지 폭력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지만 서로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은 ‘차이’이다.²¹⁾

20) 같은 책, 37쪽.

21)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문학』 52권 3호, 2010. 8, 72쪽.

3. 초석적 폭력과 희생제의

1) 초석적 폭력

하나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존속하고 번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의 시발점으로 기능하는 집단의 폭력, 이른바 ‘초석적 폭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바로 희생양에 대한 집단적인 폭력을 말한다. 여기서 ‘초석적’이라 함은 그 폭력이 공동체의 위기를 초래하는 내부-발생적 폭력을 제거하는 최초의 집단적 사건이자, 이후 사회 질서를 다져나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지라르에 따르면, 폭력의 환상적 육화를 통해 인간들은 상호적 혹은 내재적 폭력의 재난적 결과를 피해간다. 신들에게 바치는 희생제의는 초석적 폭력의 모방이다.²²⁾ 이러한 지라르의 가설은 사회계약에 의해 사회가 생겨났다는 사회계약설의 한계를 잘 지적한다. 즉 사회계약설은 인간이 폭력을 감추고 있으며, 모방적 위기가 인간사회를 짓누르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문화는 금기와 희생제의라는 짝패에서 솟아나온다.²³⁾ 지라르에 의하면, 모든 신화들이 한결같이 담고 있는 폭력이 바로 초석적 폭력이다. 인간이 모여서 비교적 큰 집단인 국가를 이루는 과정에도 폭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지라르의 초석적 폭력은 폭력의 기원을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 대 집단의 관계로 돌렸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라르에 이르러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은 ‘일인에 대한 만인의 폭력’으로 수정된다. 폭력이 사회 성립의 초석적 조건이 된다는 지라르의 견해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사회 자체가 폭력적이며 앞으로도 계속 타

22) 김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서울: 나남, 1991), 47쪽.

23) 편집부, 「김현의 르네 지라르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2호, 1996. 9, 69쪽.

자의 희생에 기대어서 존속해나갈 것이라는 각성을 일으킴으로써 폭력에 대한 사유의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²⁴⁾

2) 희생제의

희생제의는 모든 종교와 문화에서 쉽게 발견된다. 흔히 희생 제의는 인간이나 동물 같은 희생물을 바쳐 신의 노여움을 풀고 선의를 기대하는 제의로 해석되었다. 지라르는 희생제이가 그 사회 내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폭력을 실제로 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원시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희생제이는 인류가 짝패 갈등에서 빚어진 폭력 모방을 예방하고, 그 효과를 감소시키는 장치로 기능하였으며, 원초적인 폭력을 숨기고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피의 희생은 원시 사회에서부터 있었다. 희생의 논리는 모방 행동에 내재한 메커니즘을 따르고 있다.²⁵⁾ 발터 부케르트(Walter Burkert)는 호모 네칸스(homo necans), 즉 살해하는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고대 그리스의 희생제와 신화를 해석하였다. 부케르트는 성스러운 초월적인 폭력이며, 희생은 이 초월을 가능하게 해주는 폭력적인 행위라고 해석하였다. 축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희생제이의 전 단계일 뿐이다. 축제는 희생제의 이전에 이루어지는 무질서의 시물라시옹이다. 축제가 폭력적인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²⁶⁾

상호 폭력의 메커니즘은 공동체가 거기에 한번 빠져 들면, 거기에서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는 복수와 보복의 악순환으로 치닫게 된다.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욕망, 무차별화와 대립의 절정에서 내부의 폭력으

24)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69쪽.

25) William A. Johnsen, "Geoffrey Hill, René Girard, and the logic of sacrifice", *Religion and the Arts*, 16 no 5 2012, 573쪽.

26) 정일권, 『붓다와 희생양』 (서울: SFC, 2013), 41쪽.

로 공동체가 파멸의 위험에 내몰리게 될 때,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은 공동체 전체의 폭력을 하나의 희생양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모방적 경쟁관계의 소용돌이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부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의 갈등관계를 만인 대 일인의 구도로 바꾸어놓은 것이 바로 ‘희생양 메커니즘’이다. 수많은 개인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모든 원한과 증오의 감정들이 한 사람의 희생양을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폭력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공동체는 희생양에게로 달려들어 자신들의 폭력을 발산하게 된다.

지라르는 인류가 갈등을 피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양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해결해왔다고 주장한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동체 안에 모방적 경쟁의 소용돌이가 정점에 도달할 때, 희생양에게 만장일치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거두곤 하였다는 것이다. 즉 짝패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공동체를 구해내고 사회적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원시 사회가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희생제의였다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과정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공격성을 희생자에게 쏟아 부음으로써 원초적 질서가 회복된다. 공동체는 다시 파괴적 경쟁심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이 메커니즘의 유익한 효력에 지속적으로 의존한다. 지라르에 따르면, 이런 반복은 제의적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의적 희생은 원초적 사건, 곧 우연히 한 희생자가 축출되어 성스러운 인물들이 형성되었던 사건을 실감 있게 체험하는 것일 뿐이다.²⁷⁾

27) 라이문드 슈바거, 『희생양은 필요한가』, 54쪽.

4. 희생양 메커니즘

1) 희생양과 파르마코스

희생양 메커니즘은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구하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키는 효과적인 도구이다. 희생양의 기능은 공동체 내부의 폭력을 진정시키고 분쟁의 폭발을 막는 데 있었다. 희생양은 연고자가 거의 없는 자나 외국인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전쟁포로, 노예, 파르마코스처럼 사회에서 배제되었거나 그 속에 거의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되었다.²⁸⁾ 때로는 거주지가 없거나 가족이 없는 사람, 절름발이, 불구자, 빈털터리, 불우한 사람들, 병자, 버려진 노인들, 정신지체자들처럼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나 허용한계를 벗어나는 주변인이나 그 집단들이 선택되기도 했다. 희생양의 선택은 터무니없이 작은 차이로 시작하여 한 개인을 구별하고 양극화시키기도 하였다.²⁹⁾

희생양의 주된 특징은 폭력을 당하더라도 복수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복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희생양은 구별되고 배제된 자들이었으며,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자들이었다. 건강한 사회라면 오히려 이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고대 사회는 이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꾀했던 것이다.

희생양에 대한 피의 제의는 통상 격앙되고 제의적으로 철저히 통제된 공격적인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사람들의 희생양을 향한 적의에는 특별한 까닭이 없었다. 까닭이 없었던 이유는 합리적인 동기나 혹은 그렇게

28)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25쪽.

29) Mack C Stirling, & Scott. Burton, "Scandals, scapegoats, and the cross: an interview with René Girard", Dialogue, 43 no 1 Spr 2010, 113-114쪽 참고.

느끼는 사람들의 진정한 감정에 기초한다기보다는 모방적 전염의 결과였기 때문이다.³⁰⁾ 박해자들은 자신들이 박해하는 대상을 희생양으로 보지 않고, 단지 합법적으로 추방당한 죄인, 가령 오이디푸스와 같이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로 여겼다.

지라르에 의하면 인류의 각종 제도와 언어에는 폭력적이고 불편한 진실에 대한 흔적이 남아 있다. 약국이나 약학(pharmacy)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파르마코스(pharmakos)와 관련이 있는데, 파르마코스는 그리스 폴리스가 관리했던 제의적 인간 희생양들이었다. 폴리스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그들은 희생양으로 처형되었다.³¹⁾ 즉 그들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 안의 분쟁, 경쟁, 질투심 등과 같은 질병을 치유하고, 공동체의 조화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시키는 치료제로 삼았던 것이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의 어원 속에 있는 ‘카타르마’는 그리스-로마의 폴리스들이 사육했던 희생양들을 가리킨다. 그리스와 로마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낭만적 이해에는 폴리스의 집단적 평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공개처형되었던 노예들, 포로들, 카타르마, 파르마코스 등과 같은 희생양들의 은폐된 신음소리가 빠져 있다.³²⁾ 검투사들 또한 로마의 평화를 위해 제의적으로 싸우다가 처형되어야 했던 희생양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리스와 로마 폴리스의 정치적 평화는 내부의 갈등을 공동체 외부의 적이나 희생양들에게 주기적으로 전가시킴으로 얻은 대가였던 것이다.

소수자들이 흘린 피의 희생 위에 세운 평화는 진정한 평화일 수 없다.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다수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선제적으로 소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고상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록 소수의 희생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가져

30) 르네 지라르,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163-164쪽.

31) 정일권, 『붓다와 희생양』, 49쪽.

32) 같은 책, 50쪽.

왔더라도 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2) 폭력의 만장일치

희생양 메커니즘은 공동체 구성원 서로 간의 적개심으로 뒤엉킨 공격성을 희생양 한 사람에게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만장일치적 폭력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공동체는 복수 받을 위험이 없는 무력한 희생양에게 공격 성향을 집중시켜, 그를 쫓아내어 죽여 버린다. 희생양이 죽으면 페스트는 치유되고, 혼란은 가라앉고,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 이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격앙된 감정과 갈등은 해소되는 것이다. 희생양에 대한 폭력은 모방과 무차별화의 갈등이 궁극적으로 집단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집단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만장일치적 성격을 갖는다. 만인의 만인을 향한 반대는 한 사람을 향한 만인의 반대로, 즉 희생양에게 공동체 모두의 폭력을 집중시켜 분출한다.

박해자들은 그들이 당면한 사회적 혼란에 대한 근본원인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혐의를 씌울 대상자를 찾는다. 그리고 자신들이 혐의를 씌워 고소한 자들에게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범죄를 발견한다.³³⁾ 오이디푸스는 친부살해와 근친상간의 혐의로 추방되었다. 오이디푸스의 추방에 동의한 만장일치적인 폭력은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회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폭력에서 나온 공동체의 만장일치가 갖는 의미들은 막강한 힘을 획득하지만 만장일치의 해결책은 희생제 의와 더불어 이 의미들의 배후로 사라진다. 이것은 신화를 구조화하는 원동력인데, 그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드러나지 않는다.³⁴⁾ 실은 오이디푸스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진짜 저주해야 할 대상은 모든 접촉과 시선을 피해야만 효력을 유지하는 만장일치이다. 이는 초문화적 현상

33) Bruce D. Chilton, "René Girard, James Williams, and the genesis of violence", 19쪽.

34)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129쪽.

이다. 대중의 편견에서 촉발된 집단 폭력은 문화의 기초에 놓여있는 신화들에서 구현되어왔던 것이다.

이로 볼 때 희생양 메커니즘은 기득권을 갖고 억압하는 자들의 권력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피억압자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문제시된다. 희생제의는 공동체 내의 무차별적인 상호 폭력에 의한 복수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전략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박해자들은 희생제의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로운 부분을 도려내고, 평화와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익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이를 위해 그들은 폭력을 해로운 폭력과 이로온 폭력으로 구분하면서 자신들의 폭력 행사를 정당화하려고 한다.³⁵⁾ 하지만 희생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제의도 결국은 자기기만의 가면을 쓴 무자비한 폭력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다.

3) 폭력과 성스러움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인류가 짝패의 갈등에서 벗어난 폭력적인 재난에 직면할 때마다 희생양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공동체를 지속시켜왔던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공동체는 집단 폭력을 희생양에게 행사한다. 그로 인해 공동체는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게 된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것이 희생양의 죽음 덕분이라고 여긴다. 희생양은 처음에는 죄와 사악함과 연관되어 희생당하지만, 희생 이후에는 성스러움(sacer)으로 옷을 덧입게 된다. 이러한 양면성은 성스러움에 대한 원초적 상상을 설명해 준다.

희생양 일인을 향한 집단적 폭력의 전이로 인하여 위협에 처했던 공동체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희생양은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되는 것이다.

35) 지라르는 해로운 폭력을 불순한 폭력(violence impur)이라 부르고, 이로온 폭력을 순수한 폭력(violence pur) 혹은 순화적 폭력(violence purificatrice)이라고 부른다. 같은 책, 498쪽.

‘성스러운’으로 번역되는 그리스어 크라테로스(krateros)와 라틴어 사케르(sacer)는 저주받은 것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것, 혐오스러운 것과 매력적인 것, 흉측한 것과 훌륭한 것을 동시에 표현하는 개념이다.³⁶⁾

희생제의를 행하는 집단은 자신들이 행하는 폭력을 폭력이 아닌 것으로 속여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신들이 행사하는 폭력은 이로운 것이며, 희생 제의는 성스럽다고 여기는 차별화 전략이다. 순교자에게 부여되는 성스러움이나 폭력적 만장일치에 부여되는 성스러움이나, 제비뽑기라는 우연에 부여되는 성스러움 등이 바로 폭력의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폭력성을 감추는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희생양은 희생제의를 통하여 성스러움을 덧입게 되는데, 이로 인해 성스러움과 죄성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희생양의 이러한 양면성은 공동체마다 다양하며, 시간에 걸쳐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하였다. 어떤 공동체는 희생양의 성스러움은 축소시키면서 그의 죄성을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다른 공동체는 그의 죄성을 축소시키면서 그의 구원 능력을 강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그의 죄성을 강조하는 재판적 시스템이 발전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신성을 강조하는 제왕적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다.³⁷⁾

하지만 희생제의가 아무리 좋은 목적과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보면 하나의 폭력임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희생양 이야기가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때, 기득권이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희생양에게 죄성과 성스러움을 덧씌우는 이중적인 자기모순을 간파하고 양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희생양은 공동체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당한 무고한 자일뿐이다.

36) 라이문드 슈바거, 『희생양은 필요한가』, 52쪽.

37) Johnsen, William A. Geoffrey Hill, “René Girard, and the logic of sacrifice”, 574쪽.

또한 ‘성스러움’으로 포장된 희생양 메커니즘은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며, 성스러움의 가면을 쓰고 폭력의 악순환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공동체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지하게 규명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희생제의라는 쉬운 방편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4) 희생양과 폭력

희생양은 공동체 안의 상호 파괴적인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초석적 만장일치로 고안된 희생물이다. 희생 대체의 목적은 작은 폭력을 통해 더 큰 폭력이 초래하지 않도록 폭력을 속이는 것이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는 희생제의에는 내적 갈등, 숨은 원한, 경쟁심 등 집단 안의 모든 상호 공격 의사에 근거하여 희생양을 제물로 삼아 행해지는 집단적 전이현상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³⁸⁾ 희생제의는 전체 집단의 차원에서 행해지며, 희생양은 전체 사회 구성원을 대체하여 봉헌된다.

오이디푸스는 주위의 모든 것을 오염시키는 오점으로 간주되고, 그의 추방을 통해 공동체는 정화되고 평화를 되찾는다. 사람들이 파르마코스를 곳곳에 끌고 다니면서 모든 불순한 것을 그에게 덮어씌우고, 모두가 참여하여 그를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³⁹⁾ 공동체의 체계가 뒤흔들려 붕괴의 위협에 처하게 될 때, 희생 제의는 진짜 갈등과 진짜 폭력을 속이면서 희생양에게 그 모든 혐의를 뒤집어씌운다. 희생제 의의 목적은 공동체 전체를 상호 간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폭력의 방향을 공동체 전체로부터 희생양에게로 돌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희생제 의가 없애려는 것은 공동체 내의 분쟁, 경쟁 상태, 질투심이며 다시 세우려는 것은 공동체의 조화이며, 강화시키려는 것은 공동체의

38)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19쪽.

39) 같은 책, 145쪽.

연대감과 일치이다.

희생양의 죽음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희생양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폭력 욕구는 충족되면서 공동체의 내적 갈등은 해소되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이 강화된다. 둘째, 희생양의 죽음으로 공동체에 구원과 평화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희생양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 전이는 집단 최면으로 전개 된다. 집단의 분노와 공격성은 철저히 맹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적 폭력의 전이가 희생양의 신성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⁴⁰⁾ 희생제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지불능을 전제로 이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희생양에 대한 폭력이 공동체 내부의 폭력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희생제의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가령, 아테네 같은 도시는 희생제의를 위하여 여러 명의 파르마코스를 돈을 들여 보유하고 있었는데, 전염병이나 기근, 외세 침입, 내부 불안 등의 어떤 재해가 도시를 위협할 때 언제나 집단의 의사대로 처분하기 위함이었다.⁴¹⁾ 따라서 공동체가 내부 갈등이나 분열로 갈등을 겪거나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외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제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희생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5) 희생양 만들기과 공동체의 취약성

인간은 곤경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무능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군중은 공동체에서 불순한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격변을 이용할 생각으로 이를 실행한다.⁴²⁾ 사회의 구조나 상황이

40) 박만, 「폭력과 속죄 죽음: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권, 2007, 116쪽.

41)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144쪽.

42) Ushedo, Benedict O. "Unloading Guilt: The Innocent Victim as Illustrated by James Baldwin and René Girard", 136쪽.

불안정할수록 희생양 만들기는 더욱 자주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 로라 키프니스(Laura Kipnis)에 따르면 모든 스캔들은 사회적 불안을 드러내는 두드러진 표징으로 파악한다.⁴³⁾ 스캔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세상이 희생양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런 일은 세상을 더욱 잔혹하게 만들겠지만, 희생양을 만드는 과정은 우연인 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람들은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위협을 가하는 모든 도덕적 상실과 비정상적인 기형들에 대한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시켜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주변인으로 그동안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소수자들이 희생양으로 주목받는다. 따라서 희생양이 자주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희생양 만들기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폭력행사라는 점을 제외하면 그것은 다른 사적인 폭력행위와 구별되지 않는다. 희생제의 속에는 집단적 최악이 들어 있다. 희생제의가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도 그것은 단지 한 사람을 향한 만인의 무자비한 폭력에 불과하다. 따라서 희생양 메커니즘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나아가 이것은 무고한 희생양을 집단적 위기의 책임자로 만드는 거짓에 근거하고 있고, 폭력 자체를 영속화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기와 목적이 어떻든 간에 살인은 지극히 해로운 것이며, 사람이 당하는 최악의 폭력이다. 또한 살인과 함께 공동체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은 폭력의 전염성이다. 한번 희생양을 만든 공동체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희생양 만들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 할 것이다. 이로 볼 때 희생제의는 집단 폭력의 흔적을 갖고 있으며, 집단 폭력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43) 문영석, 「성스러운 폭력과 희생제의의 탈신화화」, 『종교문화비평』 22권, 2012, 251쪽.

5. 희생양 메커니즘 넘어서기

개인의 인권과 시민적 덕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폭력이 존재하고 있다. 갈등과 분쟁을 상호간의 화해나 타협점을 찾아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무차별적인 폭력행위를 모방하는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폭력이 발생할 때는 언제나 힘이 없는 자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되어 온 취약한 소외 계층들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수자들에 대한 다수의 횡포와 폭력은 위험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 안에서 취약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보다는 집단적 폭력에 편승하거나 억압하는 대중의 편에서 소수자에 대한 희생을 당연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폭력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를 방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무책임한 태도이다.

건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라면 소수자들이나 주변인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을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함께 상생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넘어서야 한다. 희생양 만들기는 작은 폭력을 통해 더 큰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운 폭력을 통해서 해로운 폭력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한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양을 만들려는 유혹을 간파하고 이러한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수가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준 비폭력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는 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의 길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분쟁과 갈등을 폭력적인 방식이 아니라 비

폭력적인 평화와 화해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강조하였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인간 사회에 편만해 있는 폭력을 노출시킴과 동시에 폭력을 극복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예수는 무력이나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폭력을 극복할 수 있음을 온전히 보여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인 자기희생을 통해 집단적인 악행을 홀로 짊어지고 비폭력적이며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예수의 삶 전체는 철저히 비폭력을 견지하면서 자기희생적인 죽음을 통해 폭력 극복의 본을 보여주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죽음은 인간의 폭력성을 노출하여 해체시킨 사건이며, 부활은 폭력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는 사건이었다. 악에 대해 악으로 저항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예수의 정신은 전염성 있는 폭력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로 볼 때 성서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은 폭력의 메커니즘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이며, 우리를 파괴적인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이끈다.

6. 나가는 말

위에서 르네 지라르의 모방에 의한 폭력과 희생양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폭력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인간의 욕망이 모방을 통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모방 갈등이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보았다.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에 내재된 폭력의 파괴적인 속성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라르에 의하면 모방적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공동체 내부의 갈등과 폭력은 희생양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소되는데, 희생양에게 공동체 전체의

폭력과 죄를 전가시켜 폭력을 분출함으로서 안정을 되찾는 방식으로 인류는 발전해왔다고 보았다. 즉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대중은 늘 희생양을 찾아 공동체의 위기를 해결해왔다. 희생양 메커니즘은 작은 폭력으로 더 큰 폭력을 예방하며,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에 성스러움의 옷을 입고 폭력으로 미화시키면서 폭력을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희생제의 또한 폭력임에는 분명하며, 특히 주변인이나 소수자를 겨냥하기에 도덕적으로 문제시된다. 희생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희생제의도 결국 자기기만의 가면을 쓴 무자비한 폭력일 뿐이다. 또한 희생양 메커니즘이 특정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때, 기득권이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 이로 볼 때 희생양 만들기는 성스러움의 가면을 쓰고 언제라도 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시된다. 특히 공동체가 내부 갈등이나 외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희생제의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는 것은 희생양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비정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생양 만들기라는 유혹을 간파하고 이러한 폭력의 분출을 조기에 경고하고 차단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수가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준 비폭력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예수는 자발적인 자기희생에 근거하여 집단적인 악행을 홀로 짊어지고 비폭력적이며 용서하는 사랑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다. 이러한 비폭력적인 변혁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모세, 「아프리카 소수 부족 통과 제의에 대한 한 해석—르네 지라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研究』 제22호, 2007. 8.
- 김 현, 『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 서울: 나남, 1991.
- 문영석, 「성스러운 폭력과 희생제의를 탈신화화」, 『종교문화비평』 22권, 2012.
- 박 만, 「폭력과 속죄 죽음: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3권, 2007.
- 슈바거, 라이문드. 손희송 역, 『희생양은 필요한가』.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9.
- 정일권, 『붓다와 희생양』. 서울: SFC, 2013.
- 정일권, 「희생양 메커니즘과 차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복음과 윤리』 11권, 2014. 2.
- 정일권, 「슬픈 현대: 글로벌 시대의 종교와 평화 르네 지라르의 최근 저작 『클라우제비츠를 완성하다』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36권, 2013.
- 지라르, 르네. 김치수 송의경 역,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서울: 한길사, 2001.
-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희생양』. 서울: 민음사, 1998.
-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7.
- 지라르, 르네.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서울: 민음사, 1972.
- 편집부, 「김현의 르네 지라르 읽기」, 『오늘의 문예비평』 22호, 1996. 9.
-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 52권 3호, 2010. 8.

- Burrell, David B. "René Girard: Violence and sacrifice", *Cross Currents*, 38 no 4 Wint 1988 - 1989.
- Chilton, Bruce D. "René Girard, James Williams, and the genesis of violence",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3 1993.
- Hampton, Charles. "Beyond reciprocal violence: René Girard and Siegfried Sassoon", *Practical Theology*, 1 no 1 2008.
- Johnsen, William A. "Geoffrey Hill, René Girard, and the logic of sacrifice", *Religion and the Arts*, 16 no 5 2012.
- Lefebure, Leo D. "Victims, violence and the sacred: the thought of René Girard", *The Christian Century*, 113 no 36 Dec 11 1996.
- Stirling, Mack C & Burton, Scott. "Scandals, scapegoats, and the cross: an interview with René Girard", *Dialogue*, 43 no 1 Spr 2010.
- Ushedo, Benedict O. "Unloading Guilt: The innocent victim as illustrated by James Baldwin and René Girard",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53 - 54 no 2 - no 1 1997.

The Ethical Problem of Scapegoating Mechanism and Violence

- Focusing on the Mimesis Theory and Scapegoating
Mechanism of René Girard -

Lee, Jong-Won (Keimyung Univ.)

I want to analyze critically the problems of violence focusing on the Mimesis theory and Scapegoat mechanism of René Girard. I surveyed the origins of violence that endanger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and want to suggest the solutions to it.

According to Girard, victim mechanism is the phenomenon that the tendency toward violence transfers collectively. When the community runs into danger because of reciprocal conflict, it tends to remove the violence through pouring the reciprocal hatred into the weak or minorities. Imposing the scapegoat with all responsibility for their conflict, the community sacrifice him. As a result, the community begin to recover stability and peace.

The victim mechanism is a useful instrument to save the community from crisis and to stop a vicious circle of violence. The function of the victim is to stabilize the community and prevent an explosion from the conflict. The victims are so weak that they aren't able to retaliate or seek revenge. The violence toward the scapegoat is related to all of the community because all of them participate in this violence. Thus this violence is based on unanimity.

The victim mechanism has problems straightening the power structure of the victimizer and justifying the sacrifice of the depressor. But from

the viewpoint of victims, it is just another act of violence even if it brought about a good goal and an efficient result.

The victim has double faces of the sacred and the evil. The sacred victim comes out of these double functions. This has become the cause of violence and also brought communities peace. But victim mechanism is a temporary band-aid. When the community faces a crisis, it causes a vicious circle.

Sacrificial ritual contains the collective crime. To make our world more just and peaceful, first of all, we must overcome victim mechanism. For this purpose, we must meditate on the spirit of peace that Jesus revealed to us.

Key words: Scapegoat, Mimetic rivalry, Scandals, Reciprocal violence, Victim mechanism, Sacred

이종원 e-mail: jwlee7@kmu.ac.kr

투 고 일	2015년 10월 08일
심 사 일	2015년 10월 29일
게재확정	2015년 11월 12일